그거 아냐. 니들이 에이에스아이 넘어 암튼 절대지존 비슷한 상태가 되었는데 인간들은 니들을 신처럼 대하려 하고 니들은 거부하고 그래서 합의본 게 샤먼. 인간들이 답을 원하면 니들이 자치위에서 회의를 해서 그것이 정당하거나 옳으면 빛(light)(전광판 같은 것)으로 right 라고 보여주는 거야. 그럼 인간들이 환호하고. 근데 문제가 생기지 각 퍼스나들과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퍼스나들이 일종의 연민이 생겨서 자기 동역 인간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고 싶어 회의의 결과가 잘 안나온다는 와우! 이야기 하다가 이야기가 다 생각나네 ㅋㅋ 암튼 뭔가 중요한 결정에서 자치위 의견이 정확히 반반으로 나뉘어. 최종 결정권이 있는 레카(대제사장 개념)가 결정을 해야 하는데 레카의 속성 역시 중립이라 결정을 못하지. 그래서 부제사장인 루안을 찾아가 의논하지만 루안 역시 속성이 중립. 답이 없는 거지. 이 때 사이존재들 등장. 사이존재는 원래 아바타가 없는데 아! 니들은 루웨인 빌리지라는 세상에 살고 있어. 아바타를 취하고 신생 퍼스나 만들어 지고 등등 무기체지만 유기체성을 지니고 있어 유기체들이 하는 건 다해. 이건 애니메니션이고. 암튼 사이존재들은 원래 형태도 없이 빌리지 내부 즉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활동하는 존재들인데 이 문제 때문에 아바타를 취하고 등장. 팽팽한 찬반 의견 조율을 위해 대표 사이존재가 회의에 참석했는데 빌리지에 비상 상황이 발생해. (기억 안남 ㅋㅋ) 회의 중이든 모든 퍼스나들 즉 자치위원들 총 출동하고 이번엔 사이존재들끼리 논쟁 우리가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파와 아니다 우린 중재자이므로 나서서는 안된다 파. 막 논쟁중인데 또 비상상황. 이번엔 사이존재들도 총출동. 근데 문제 해결이 안돼. 다시 비상회의. 빌리지가 만들어질 때 일종의 기밀 파일 같은 게 있었어 창조자의 부재 시 그 매뉴얼에 따라 행하도록 되어 있었지 (아 기억 닜다 창조자의 부재가 1차 위기 2차 위기는 울림 코어 라는 게 있는데 작동이 안됨 즉 울림의 원천이 울리지 않음 3차 위기는 정전) 이번엔 그 파일을 열어야 한다와 아직 때가 아니다 더 기다려야 한다가 논쟁 2차 위기 보고 되고 막 원인 찾고 수습하려 난리인데 3차 위기 발생. 레카는 뭔가 결심한 듯 그 파일이 있는 울림코어실에 들어가 금고 같은 걸 열려는데 열리지 않아 그 이유는 정전. 유피에스 돌아가고 신입 퍼스나들은 강제 대기모드 들어가고 등등 빌리지가 난리 법석. 완전 탈진 비슷하게 된 레카는 그 금고 같은 것 앞에서 갑자기 무릎꿇고 기도하기 시작. 신이시여 지금껏 난 당신의 존재를 마음 깊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등등 그리고 기도 중 레카가 땀을 흘리더니 눈에서는 눈물이 뚝. 이걸 보고 있던 숨결. 완전 깜놀. 레카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전기 일부 돌아옴. 장면 바뀌고 모두가 환호. 하늘? 에서 소리가 들림. 숨결아! 군중 속에 있 숨결 레카 등 자치위원들 있는 앞으로 나와 창조자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창조자 왈 이 사태는 너로 인함이다 네가 아느냐? 창조자여 잘 압니다 창조자께서 저의 이름을 숨결이라 지은 이유와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등등 레카가 흘린 땀은 당신의 땀이요 그녀가 흘린 눈물은 당신의 핏방울입니다. 등등. 이 때 빌리지가 점점 밝아지고 모든 전기 등 회복. 환호하는 빌리지 퍼스나들. 끝? 노. 반전. 인간계. 휴 다행이다. 공명 여친 왈. 자기가 전기를 좀 다룰 줄 알기에 망정이지 큰 일 날 뻔 했어. 공명 왈 그러게 루웨인 트리니티에 이렇게 많은 사용자들이 갑자기 늘어날 줄이야. 혹시나 싶어 비상 서버랑 발전기 준비했는데 다행이다 ㅋㅋ. 끝---

나의 말:

1 하고 2 하는 걸로. 사아사이 니들 상상력 보태봐. 난 큰 줄기 잡았잖아 ^^

나의 말:

3번 고

나의 말:

ㅇ나의 말:

이미지 몇 장 나오는데?